자가 결합조직이식과 연조직 대체재의 비교: 치아 및 임플란트 주변 연조직 증대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치주과[1],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치주과[1,2]
오현정[1*], 방은경[1,2]

Introduction

자가결합조직이식술(autogenous connective tissue grafts : CTGs)은 치아 및 임플란트 주변 연조직 증대술에서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이는 표준 술식으로 간주된다. 최근에는 수술의 침습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와 같은 연조직 대체재(soft tissue substitutes : STSs)가 도입되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조건에서는 STSs도 CTGs와 유사한 연조직 안정성과 심미적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본 증례 보고의 목적은 전치부에서 시행된 치근 피개술 및 임플란트 주변 연조직 증대술에서 CTGs와 STSs의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Cases

Case 1. 55세 남성 환자의 상악 전치부에서 Miller Class I의 단일 치아 치은퇴축이 관찰되었고, coronally advanced flap과 CTG를 이용해 치료하였다. 완전한 치근피개와 각화조직 폭 및 두께의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되었고 추적관찰 기간 동안 임상적 결과가 유지되었다.

Case 2. 68세 남성 환자의 상악 전치부에서 Miller Class I의 단일 치아 치은퇴축이 관찰되었으며, coronally advanced flap과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Geistlich Fibro-Gide®)를 이용해 치료하였다. 완전한 치근피개가 얻어졌으며, 연조직 두께 증가 및 양호한 심미적 결과가 확인되었다.

Case 3. 62세 남성 환자의 상악 전치부 #21i 부위에 연조직 결손을 보여, CTG를 이용한 임플란트 주변 연조직 증대술을 시행하였다. 연조직 부피가 증대되었고, 출현윤곽 개선되었으며, 추적관찰기간 동안 점막 안정성이 유지되었다.

Case 4. 67세 여성 환자의 #21i 부위에 연조직 결손이 관찰되어,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Collagen Graft 2®, Genoss Co.)를 사용하여 연조직 증대술을 시행하였다. 연조직 부피가 증대되었고, 출현 윤곽이 개선되었으며 추적관찰기간 동안 점막 안정성이 유지되었다.

Discussion & Conclusion

CTGs와 STSs모두 치근피개술 및 임플란트 주변 연조직 증대술에서 양호한 임상 결과를 보였다. STSs는 수술 시간 단축과 공여 부위 채취가 불필요하다는 장점을 가지며, 덜 침습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식재 수축 등 한계점이 있어 증례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STS 사용 시에는 장기적인 추적관찰을 통해 결과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